

10
2025

재외동포의



특집 _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9회 세계한인의날
67개국 한인회장 “대한민국 평화·번영 위한 결집 다짐”
기획 _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K-푸드로 경제권 넓힌다”
대니 리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원
이달의 재외동포 _ ‘모국 투자의 선구자’ ‘일본의 방적왕’ 서갑호 회장



인공지능(AI) 시대, 한글이 답이다

한글,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언어...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579돌 한글날을 맞이하며,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언어는 바로 한글이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사람과 기계의 정확한 소통이다. 영어는 Z와 S, L과 R처럼 발음 혼동 가능성이 높은 음소들이 많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 하나의 소리에 정확히 하나의 글자가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AI와의 소통에서 결정적인 강점이 된다. 음성 인식 시스템, AI 명령어, 언어 기반 플랫폼에서 한글이 가장 적합한 언어가 될 수 있는 이유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발성 원리와 조음 기관 묘사를 현대 의학과 음성학으로 분석하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문자를 설계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음성학자로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내년엔 자기공명영상(MRI) 분석을 통한 '훈민정음 음성학' 연구서를 출간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세계 젊은 세대에게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나의 조부이신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가장 존경하셨던 분이 세종대왕이시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2015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이끌며, 훈민정음 제자해의 과학성을 규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한글이 과학적 문자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제자의 음성학적 지식이다. 세종대왕이 조음 음성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했다. 둘째, 체계적인 원리이다. 한글은 상형을 대원칙으로 하고 가획과 합성을 하위 원칙으로 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는 음소 단위 구성이다. 초성-중성-종성의 음소 조합으로 음절을 구성하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이다. 넷째는 조음 위치별 분류이다. 발음기관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과학적 분류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공명강 모양의 정확한 반영이다. 모음 조음 시 공명강의 실제 형태를 글자로 형상화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훈민정음은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이 아니다. 세종대왕께서 홀로 완성하신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이는 의논해서 만들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아니다. 세종께서는 중국 음성학자 황찬에게 확인하고자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신숙주와 성삼문을 열세 차례나 요동으로 보내셨다. 이는 세종께서 직접 학문적 갈등을 풀며 창제 작업을 주도하셨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소홀히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문자를 자부심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글이 쉽게 배워진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국어 교육에서 훈민정음과 세종의 백성 사랑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영어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간판, 기업명, 행정 표기 등 도처에서 영어가 남발되면서 우리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국가 차원의 언어 정책과 사회 지도층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한글은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디지털 언어로서의 기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579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 모두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함께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하신 한글, 그 정신을 잊지 말자. **창**



- 02 창을 열며** 인공지능(AI) 시대, 한글이 답이다
한글,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언어...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 04 특집**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9회 세계한인의날**
67개국 한인회장 “대한민국 평화·번영 위한 결집 다짐”
이재명 대통령 “해외 국민·동포 안전 지키겠다”
인터뷰 - 로버트 안 미국 LA 한인회장
 고정미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인회장
 박찬원 호주 태즈메이니아 한인회장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
- 14 기획**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K-푸드로 경제권 넓힌다”
대니 리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원
- 18 이달의 재외동포** ‘모국 투자의 선구자’ ‘일본의 방적왕’ 서갑호 회장
- 20 글로벌 코리안** 유분자 미국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22 초대석**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내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 주도 첫 시험대
- 24 OKA 뉴스** 김경협 청장 “고려인들 모국과 유대 이어가도록 지원” 외
- 26 재외동포청 공지** ‘동포기업 인턴십’ 체험 시기 공모...11월 7일까지



발행인: 김경협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67개국 한인회장 “대한민국 평화·번영 위한 결집 다짐”

김경협 동포청장 “한인회 목소리 정책에 반영…실질 지원 강화”

내년 대회장에 윤희 아시아총연회장·이석로 캐나다총연회장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 미래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흘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 세계 67개국의 한인회장과 대륙별 총연합회 임원 등 370여 명이 참여했다.

김경협 청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글로벌 재외동포사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폐회식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평화와 안정 등을 담은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재외동포사회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와 E.N.D(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실현을 지지하며,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 유대 강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극복에도 재외동포 청년 인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연령 하향 지지 ▲태극기의 날 제정 제안 ▲한인회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 제안 등을 결의했다.

전날인 9월 30일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방안, 지역 한인회 분쟁 해결 등 전 세계 한인회의 연대를 위해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주도한 ‘공통 의제 토론’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정부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법무부, 국세청, 중앙선관위, 국민연금공단, 국립민속박물관 등 5개 기관이 국적법, 세법, 재외선



폐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거, 사회보장협정, 유물 수집제도 등 동포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인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자의 동포정책과 한인회 협업사례를 공유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들은 대회 기간에 회의를 열어 내년 공동 대회장에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윤희 회장과 캐나다한인회 총연합회 이석로 회장을 추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국민·동포 안전 지키겠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제 지혜 모을 것”...해외 투표 제도가 개혁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천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인해 동포 사회에서도 현지에서의 안전이나 비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에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를 돕고 독립자금을 마련한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빼앗긴 빛을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K팝·K푸드·K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동포들, 각국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자 브랜드”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동포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현재 65세로 규정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완화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가보니 동포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한인회 등 조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며 “여러분도 국민인데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영사 기능을 강화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교민을 향한 중심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 여러분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여러분과 손잡고 앞서가겠다”고 했다. **[창]**

“LA 산불, ‘폭동의 기억’ 넘어 한인의 힘 증명했죠”

2026 월드컵 · 2028 LA 올림픽 앞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코리아타운’ 프로젝트 가동

“취임 5일 만에 역사적 규모의 산불을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였죠. LA 폭동 당시 ‘피해자’에서 이번엔 ‘돕는 주체’로 한인사회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50세의 젊은 나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를 이끄는 로버트 안 회장. 그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최 ‘2025 세계한인회장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직후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과 맞서야 했던 안 회장은 산불 피해 현장과 한인사회의 대응, 그리고 2세대 한인 리더로서의 비전과 고민을 허심탄화하게 풀어놓았다.

안 회장은 “이번 산불은 기록적인 피해를 낳았지만, 주로 백인 거주 지역에 집중돼 한인 피해는 다행히 제한적이었다”며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이 무방비로 방치돼 큰 피해를 봤던 상황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대규모 구호·물자 지원...이젠 우리가 돕는다”

변호사인 그는 산불 당시 법률 구조 지원을 돕던 경험을 떠올

리며 “산불 소식을 들었을 때 LA 폭동의 기억이 겹쳐 한인사회에 주는 충격이 컸다”고 회상했다.

한인회에 접수된 피해 가정은 약 40가구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안 회장은 “전소된 가구는 토양 정화와 안전성 검사, 허가 절차 등 복구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보험 문제와 부동산 가치 하락, 투자자들의 매입 시도까지 얹혀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LA 한인회는 미국 주류 사회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안 회장은 “한인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불과 사흘만에 20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산불 피해 현장에 신속히 배포했고, 2개월 만에 23만 달러 성금을 모았다”며 “한인사회가 단결해 지역사회를 돕는 모습이 오히려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했다.

주정부·LA시와 직통하며 한인회 존재감 각인

그는 “과거 폭동 때는 한인타운이 정치적 무력감 속에 버려졌지만, 지금은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접



로버트 안(뒷줄 오른쪽 5번째)회장이 산불 피해 한인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LA 한인회에서 후원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로버트 안(오른쪽 2번째) 회장이 산불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모금 현황, 피해사례 및 지원방침 등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로버트 안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장

근성이 달라졌다”며 “한인사회가 주류 사회와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A 한인타운의 최대 현안은 공공안전이다. 안 회장은 “노숙자와 정신질환자 문제, 범죄자 불기소 정책 등으로 치안이 심각하다”며 “한인회가 앞장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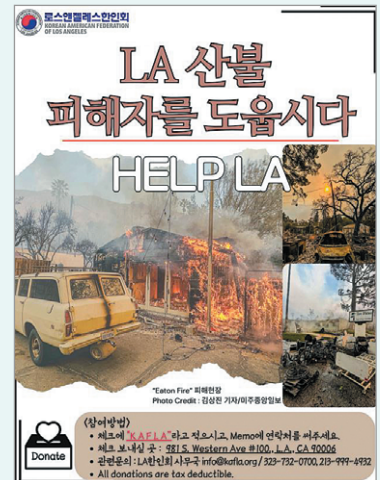
그는 “한인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하다. 버스와 도보 이동이 많은데 범죄 노출이 크다”며 “정부 예산만 기다릴 수 없어 한인회 주도의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모습 그대로라면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한류 열풍으로 한인타운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회장에 취임하면서 슬로건을 ‘이음’으로 정했다. 그는 “‘이음’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걸어가며 유산을 계승하는 의미”라며 “이 개념은 영어로도 번역하기 힘든, 한인 공동체만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세대가 이룩한 한인회의 유산이 준비 없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한인회장 출마 이유 중 하나였다”며 “2세, 3세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한인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LA 산불 한인피해 구호 캠페인 포스터



“K-팝과 삼성으로 한국인 인식 크게 달라져”

안 회장은 “K-팝과 삼성, BTS의 성공으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예전에는 주류 영화에서 한국인이 배달원 역할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은 곧 동포사회의 힘”이라며 “유대인 공동체처럼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대인처럼 소수지만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디아스포라 지원에 나서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앤디 김 의원 같은 정치인의 성공은 개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더 막강한 ‘코리아’가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안 회장은 한국어로 매끄럽게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시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어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서 “한국어는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84년 LA 올림픽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한국을 응원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제 정체성은 늘 한국인이었다”는 안 회장의 말속에서 2세 리더의 뿌리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안 회장은 “현재 한인들은 성공했지만, 봉사과 기부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임기 2년 동안 단순히 한인회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후세가 책임과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음’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6·25 참전용사에 마지막 큰절…섬김은 계속됩니다”

“참전용사 예우·정착지원·문화외교 ‘K-가교’ 비전”…현지와 어우러진 공공외교 모범

“마지막 공식 섬김 행사에서 큰절이었지만, 감사와 예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방식만 달라질 뿐이에요.”

뉴질랜드 북섬 해밀턴에서 약 2천 명의 한인 사회를 이끄는 고정미(64) 와이카토 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29일 개최한 6·25 전쟁 75주년 기념행사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와이카토 지역 참전용사 섬김 행사인 ‘피스 선데이’(Peace Sunday)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한때 30명이 넘는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으나 세월이 흘러 5명만 남은 데다 고령인 점을 고려해 공식 행사는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린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차 모국을 방문한 그는 “한민족의 보은 정신은 더 넓고 촘촘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12명을 비롯해 한인과 현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브라이언 참전용사가 ‘15세 소년병의 기억’을 낭독하는 순간 모두가 숙연해졌다”며 “이날의 감동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국인의 감사 정신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고 전했다.

코로나 위기 넘어서 ‘올인원 서비스’

와이카토 한인회는 1995년 설립된 이래 한인의 정착과 생활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 고 회장은 “한인회는 단순히 한인들만의 울타리가 아니라, 현지와 나란히 걷는 가교”라며 “참전용사 예우·정착 지원을 돕는 공공서비스·문화교류가 우리 활동의 삼각 축”이라고 설명했다.



고정미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인회장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인회의 저력은 빛을 발했다. 2020년 5월, 귀국길이 막힌 한인과 유학생들을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해 대한항공 특별기 운항을 성사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한인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한인들의 정착 지원은 ‘올인원 인포메이션 데이’를 통해 체계



지난 6월 29일 마지막 참전용사 섬김 행사에서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인사를 전해 심금을 울린 고정미 회장.



지난 6월 29일 뉴질랜드 해밀턴시에서 열린 6·25 전쟁 75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 섬김 행사인 '피스 선데이'(Peace Sunday)를 마치고 고정미(뒷줄 왼쪽서 6번째)회장이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했다. 고 회장은 “오uckland까지 가지 않고도 하루에 영사 업무, 법률·회계·의료·심리 상담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한인들이 크게 호응한다”며 “다문화 정착은 결국 문턱을 낮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대 잇는 ‘K 실버 미팅’과 공동체 돌봄

고령화로 접어든 한인 사회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매달 열리는 ‘K 실버 미팅’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그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고 건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이민살이가 외롭지 않다는 말씀을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 동포를 위해 주 1회 이상 무료 음식을 제공하고, 젊은 부모 모임 ‘해초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무료 한국어·컴퓨터 교실, 영어 강좌·종이접기 등을 가르치는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고 회장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플랫폼이야말로 한인 공동체의 힘”이라고 했다.

특히, 매년 열리는 ‘K-페스티벌’은 현지 사회와의 교류를 상징하는 행사다. 불고기·비빔밥 체험, 김치 담그기, K-POP 대회, 가야금·부채춤 공연, 종이접기, 한복패션쇼 등 전통예술 무대가 펼쳐져 500명이 넘는 현지인이 참가한다.

고 회장은 “현지인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며 한국 음식을 온몸으로 체험했다”며 “문화외교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맛보고 함께 웃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현지인과 함께해야 한다”며 “거주국에 세금을 내고 그 나라도 빛내줘야 세계 속에서 빛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회는 해밀턴 시청과 재외동포청 후원, 뉴질랜드 정부 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무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쌓았다. 그는 “핵심은 신뢰와 투명성”이라며 “작게 시작해도 기록과

신뢰를 쌓으면 정부 지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고 회장의 봉사 이력은 교육 현장에서 더욱 빛난다. 그는 2000년부터 24년간 와이카토 한국학교 교사·교감·교장으로 봉사하며 차세대 한국어·역사·문화·정체성 교육에 헌신해왔다. 또 뉴질랜드 한글학교 협의회와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협의회를 함께 창립해 회장을 지냈고, 세계한글학교협의회 대표도 역임했다. 현재 한글학회 해외 교원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글·역사·문화 교육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지 사회와 맞물린 프로젝트를 엮어야 합니다. 교사는 희망의 인프라니까요.”

또한, 와이카토 다민족협회 부회장으로 다문화 축제에 한복을 입고 꾸준히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그는 “현지인들이 한복을 통해 한국을 이해할 때 가장 뿌듯하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영국 여왕 공로 훈장 받아

고 회장은 그동안의 공로로 뉴질랜드 영국 여왕 공로 훈장(2012), 해밀턴 시민봉사상(2014),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2016), 한글학회 국어운동 공로 표창(2018), 세계한인의 날 국민포장(2024) 등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훈장과 상훈은 제가 아니라 한인들이와 현지인,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받은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지속 가능한 예우’로 참전용사 지원을 생활과 기록 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착지원원은 연중 상설화하겠다”며 오는 11월 8일 열리는 ‘K-페스티벌’을 통해 노년·청년·다문화가 한 무대에서 만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전용사 예우는 기억을, 정착지원원은 오늘을, 문화교류는 내일을 여는 길입니다. 와이카토 한인회는 앞으로도 한국과 뉴질랜드를 잇는 ‘K-가교’가 되겠습니다.” 

“‘태즈메이니아’를 아십니까…노년층 도전해보세요”

49세 늦깎이 이민 후 창업해 성공…“해외 진출, 청년만의 전유물 아니야”

“해외 진출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장년·노년층의 경험과 네트워크야말로 현지 사회에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호주 태즈메이니아 한인회장 겸 한인봉사연합회 회장인 박찬원(70) 회장.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늦깎이로 도전한 해외 이민 경험을 이렇게 풀어놓으며 중장년·노년층의 해외 진출 도전을 권유했다.

태즈메이니아는 ‘청정의 섬’으로 불리며 깨끗한 환경을 자랑한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범죄율이 낮아 안전해 특히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 매력적인 이민지로 꼽힌다. 경쟁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기 좋아, 은퇴 후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박 회장은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는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이나, 호주-한국 간 교류 프로젝트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이나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며 제2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지 한인 노년층의 인맥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며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중장년이나 은퇴 후의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기”

박 회장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건설업 기반을 두고도 청년 시절부터 품어온 해외 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2004년 49세의 나이에 호주로 떠났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그의 신념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으로 이어졌다. 어학원에서 영어와 호주 문화를 익힌 뒤 건축 현장 노동자로 나서 목수·미장·타일·인테리어까지 밀바닥 경험을 다시 쌓았다.



지난 2015년 호바트 시내 ‘우정의 벽’에 그간 누락됐던 ‘태극기 패’를 부착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한 박찬원(오른쪽서 4번째) 회장.

8년간 준비 끝에 2012년 설립한 건설사 ‘하모니(Harmony)’는 건자재 수출입, 설계, 시공,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산 건자재와 온돌 난방 시스템을 호주에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박 회장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현지의 깊은 파악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즈메이니아 부동산 개발에 의욕만으로 뛰어들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규와 관행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지 조언을 들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초창기, 한인 사업자에 대한 신뢰 부족은 타운하우스 자체 개발·판매로 실적을 쌓아 돌파했다. 문제가 생기면 “결정권자를 직접 만나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길을 열었다.

한글학교·문화행사 열며 유대감 넓혀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한인 사회 리더인 그는 ‘나눔과 봉사’를 삶의 철학으로 꼽는다. 어린 시절 어려움도 겪어보면서 자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체감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



박찬원 호주 태즈메이니아 한인회장. 그는 “나눔과 봉사”를 삶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태즈메이니아에서 한인 봉사연합회를 창립할 당시, 뜻있는 한인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글학교·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유대감을 강화했다. 특히, 현지 중국 커뮤니티를 통한 중국계와 협력해 영향력을 확장했다.

“소수의 한인이지만,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글학교·문화행사를 열며 유대감을 넓혔습니다. 작은 힘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는 믿음이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년 설날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설날에는 호바트 살라망카 광장에서 설 축제를 열며 태권도 시범 행사와 떡볶이·불고기 등 K-푸드를 선보이며 한국 문화를 알렸다.

지난 추석 때도 입양동포 가족들과 한인들 간 추석맞이 행사를



지난 2월 설 명절 태권도 시범 선보인 한인 차세대

가졌다. 아나바다로 물품 나눔도 했고, 친선도모를 하며 5년째 좋은 결실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한인 사회의 숙원도 성사했다. 6·25 참전용사 추모 공간인 ‘한국의 딸’에는 2014년 경기도 가평군 지원으로 한글 표지석이 세워졌다. 앞서 ‘일본해’로 잘못 표기된 안내판을 ‘동해’로 바로잡았고, 호바트 시내 ‘우정의 벽’에는 누락됐던 ‘태극기 패’를 2015년 부착했다.

그는 “호주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역사적 사실과 한-호 우호를 강조하며 끈질기게 설득했다”며 “정기적 클린업 활동과 참전용사들의 지지가 힘이 됐다”고 돌아섰다. 입양 동포에게 한글을 가르쳐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게 된 일, 참전용사 보은행사에서 함께 눈물 흘린 순간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한인 숙원 이룬 ‘한국의 딸’…문화복합 공간으로 확장 추진

앞으로도 K-팝·영화 교류, 한복 체험 행사로 호주 전역에 한국 전통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호주 한인 이민 역사 편찬 위원회 활성화로 한민족의 발자취를 후대에 알리고,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자료 발굴 및 보존 사업도 그의 목표다. 이밖에 입양 동포 가족들의 네트워크도 촘촘히 엮어 정체성을 심어줄 계획이다.

박 회장은 현재 ‘한국의 딸’을 문화복합 공간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진행 중이다. 부지 확보와 기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 공간이 아닌, 현지인과 한인이 교류하며 한인회 사무소·한글학교·전시관·공연장을 결합한 ‘한-호 문화 허브’를 세우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 공연 및 공예 전시뿐만 아니라 호주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시, 공연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박 회장은 끝으로 차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뒤늦게 이민 와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한인들과 힘을 모아 목표를 이뤘습니다. 차세대는 더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함께’라는 힘으로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지난 2월 설 축제서 한복입고 K-푸드 선보인 박찬원(오른쪽) 회장.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 동력이자 전략 자산”

이스라엘 청소년 정책서 본 한국의 과제...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를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근(61) 이스라엘한인회장(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장)은 1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최 ‘2025 세계한인회장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스라엘이 청소년 디아스포라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끌어올린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이스라엘은 외교부, 이민부, 유대인청, 세계 시온주의 기구(WZO) 등 네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정체성 교육, 단기·장기 모국 방문 프로그램, 귀환(알리아), 정착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결하는 완결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스라엘의 정책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정체성을 단순한 문화교육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모국 방문, 귀환으로 발전시켜야”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교육, 방문, 귀환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계했듯, 한국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정체성 유지에서 참여와 기여, 나아가 귀환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 외교, 정착 지원이 각각 흩어져 있지만,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야 재외동포 정책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국 방문 이후에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어지도록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청년 커뮤니티를 유지한다”며 “한국도 해외 청년과 국내 청년이 연결돼 인턴십이나 창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역방향 리더십 파견의 필요성도 짚었다. “이스라엘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

의 ‘슐리힘’(Shlichim)처럼 한국도 청년 리더를 해외 한글학교와 한인 단체에 파견해 정체성 교육을 직접 이끌게 해야 한다”며 “이런 경험은 청년들에게는 리더십 훈련이 되고, 현지 공동체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당시 이웃 한인회와 공조해 피난

이 회장은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 당시 교민 피난을 직접 지휘한 경험도 털어놓으며, “위기 앞에서 한민족은 하나로 뭉쳐 서로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전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우리끼리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한인회가 주도한 긴박했던 교민 피난 과정을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 당시 이집트로 피난간 이스라엘 동포들.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의 미사일 반격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역은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미사일 경계가 강화되자 약 800명 규모의 한인사회도 피난 대책을 서둘러야 했다.

요르단·이집트로 이어진 '전시 탈출 작전'

이 회장은 "상황 악화가 빨라 공항 탈출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한인회가 직접 교민 피난 지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곧 육로를 이용한 비상 피난 계획을 세웠고,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과 공조해 인접국 요르단 루트를 먼저 개설했다.

15일 1차 피난이 시작돼 노약자와 어린이 등 6명이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을 우회해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했다. 이어 16일 2차로 23명이 추가로 요르단에 도착했다. 전황이 더 악화되자 한인회는 이집트 카이로 경유 루트까지 넓혀 23일 43명의 교민을 타바(Taba) 국경을 통해 탈출시켰다.

"육로 이동은 16시간 이상 걸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공습경보로 이동을 멈추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난 행렬을 위해 한인회는 새벽에 도시락과 생수, 응급 약품을 준비했다.

"새벽 4시에 교민들과 함께 도시락을 준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국경을 넘어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한인회가 따뜻한 식사와 홈스테이를 마련해 줬고,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한민족의 연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요르단·이집트 한인회는 긴급히 홈스테이 형식 피난 수용체계를 가동했고, 명성교회 등 한국 교계가 피난 비용을 지원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도 요르단·이집트 대사관과 연계해 국경 이동 허가와 차량 지원을 확보했다.

한인회 연대로 '레반트 한인총연합회' 출범

이 회장은 "국경을 넘자 현지 한인들이 손을 잡아주며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줬다. 한민족 연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피난을 계기로 지역 한인회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새로운 국제 협력기구 출범 사실을 밝혔다.

"전쟁 중 각국 한인회가 보여준 협력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레바논·시리아·요르단·이스라엘·이집트 등 5개국 한인회가 이집트 다하브에 모여 '레반트 한인총연합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이강근 이스라엘한인회장이 맡았다.

이 연합회는 중동 분쟁 지역 교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안전 대책을 수립하며, 위기 발생 시 피난·구호·연락체계를 가동하는 상설 구조 네트워크다.

이 회장은 "전쟁과 테러 위험이 일상인 지역에서 한인회 간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창]**



레반트지역 한인총연합회 소속 한인회장들. 이들은 지난 9월 2~4일, 레바논·시리아·요르단·이스라엘·이집트 5개국 한인회가 이집트 다하브에 모여 '레반트 한인총연합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이강근 회장이 맡았다.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K-푸드로 경제권 넓힌다”

목포서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한상 경제권 구축·중소기업 해외 진출 논의
재외동포청·전남도 공동주최 ‘2025년 제2차 수출상담회’ 개최…상담 열기 ‘후끈’

전남 목포에서 10월 21일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 K-푸드를 활용한 한상 경제권 확대 전략이 논의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이날 목포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식과 주제 발표, 패널 토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재외동포청의 미션은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는 한상을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FTA, WTO 등 전통적인 무역 규칙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신질서가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관세 장벽이 높고 규제가 복잡할수록 현지 시장을 잘 아는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계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해외 바이어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재외동포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로-한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글로벌 한상 경제권은 경제, 기술, 창의성으로 묶이는 새로운 생태계”라며 “전남도의 강점인 K-푸드를 중심으로 동포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공전략’에 대해 발표한 대니 리 미국 유나(Juna) 미주법인장(OK-BIZ 위원)은 “미국 시장 진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체계적 준비와 장기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제품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 거래 가치 창출, 지속적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상생의 파트너십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지자체·기관, 중소기업, 미주 한인 경제인, 미국 지방정부 등 4개 주체가 함께 이익을 보는 모델을 마련해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영미뷰티 대표는 ‘동포 경제인과의 협업, 해외시장 성공 사례’ 발표에서 “수출 준비 과정은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꾸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한나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차장은 ‘문화를 선도하는 K-푸드 산업 성장 출구 전략’을 통해 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2025년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현지화 방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미국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수출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노하우와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70개 기업 · 16개국 30명 동포 바이어 참여

22일에는 같은 자소에서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 제2차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특히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소속 경제인 30명이 초청돼 전남지역 유망 중소기업 70개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품목은 미용 기구에서부터 화장품, 수산물 등 소비재까지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매칭을 넘어, 실질적인 계약성과 창출과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현장에는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참가 기업들의 상담을 도왔다. 25개 테이블에서 국내 중소기업인과 해외 바이어 100여 명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전남 완도에 본사를 둔 (주)바다명가(세종물산) 장세중 이사는 “김과 미역, 다시마를 미국, 중국, 캐나다 등 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수출 다변화를 위해 상담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유기농 건미역 등의 제품을 생산해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회를 찾은 전북 유통기업 ‘바다소풍’ 박양환 전무는 “중국, 일본, 대만에 월평균 7억~8억원 규모로 수출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진출을 위해 상담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문이 들어와도 컨테이너 부족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북을 제때 수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동포 경제인과 맞손 잡은 전남 기업들

OK-BIZ 위원으로 수출 상담에 참여한 이유경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인도 뉴델리지회 수석부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상담하러 오는 제품 카테고리가 대부분 해산물로 다양화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동포청이 추진 중인 ‘한상(韓商) 경제권’ 구상의 일환이다. 이 구상은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공식 발표됐으며,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기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출상담회는 최근 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를 감안해, K-푸드와 관련 있는 OK-BIZ와 중소기업을 주로 선정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상담회에는 지난해 8월 위촉한 OK-BIZ 자문위원 180명 중 30여명이 참석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지역 우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OK-BIZ는 23일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장’도 방문해 부스 참여기업 42개사와 기업상담과 박람회장 투어도 진행했다. 

“모르는 것 깨닫는 순간, 비즈니스는 시작”

“한국기업, 美서 성공하려면 제품 아닌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아는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려는 과정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대니 리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원은 22일 전남 목포에서 재외동포청과 전남도 공동주최로 열린 ‘2025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리 위원은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소매상에서 출발해 도매상, 대형 유통시장까지 35년 넘게 몸으로 부딪쳐온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인물이다. 주나(Juna) 미주법인장을 맡고 있으며 G-드래곤 하이볼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리 위원은 “코트라(KOTRA)와 연결된 적이 없다”며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배웠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부족한 게 현장 감각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 ‘아는 영역’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게 진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성공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바이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 방식에도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많은 기업이 제품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제품 하나로 승부를 걸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죠.”

‘바이어가 사고 싶은 제품’ 찾아야

실제 사례로 몇 해 전 유행했던 ‘얼린 김밥’을 들었다. “김밥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자 수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밥을 제품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죠. 미국 바이어들은 단일 제품보다 ‘전체 밥상’을 원합니다. 김밥 2-3종에 다른 반찬을 곁들여 세트 프로그램으로 제안해야



대니 리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원

그들의 눈에 띄니다.”

그는 또 “바이어는 ‘내가 원하는 건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품의 가치가 아닌 거래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을 납품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래 후에도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하죠. 재고가 정체되면 디스카운트 판매를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이어와 신뢰가 쌓입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망인 월마트의 ‘리테일 링크’(Retail Link) 시스템을 활용한 경험도 소개했다. “매장별로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흐름이 좋지 않으면 바이어에게 먼저 연락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거래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업은 납품 이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주문 중단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제품이 시장에 입점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팔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죠. 그걸 외면하면 수익 원 투자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스토리텔링’과 ‘현지화’를 철저히 준비해야

리 위원은 한인 마트를 통한 시장 진입 방식에 대해서도 냉정히 말했다. “한인 마트는 접근성이 좋지만,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25~30개 매장만 돼도 독점권을 요구하죠. 그러면 유통업체는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는 일이 잦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PB 상품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합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한국 기업이 ‘스토리텔링’과 ‘현지화’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바이어는 ‘왜 이 제품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단순히 맛있거나 싸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포장, 인증, 유통기한, 소비자 리뷰가 현지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83%가 아직도 오프라인 중심이라며, 아마존만 바라보는 건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유통 구조는 25년 전과 거의 같습니다. 35년 동안 연구했지만, 미국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5년 뒤에도 그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지속해 신뢰를 쌓는 기업만이 자리를 잡죠.”

작은 거래에서 신뢰 쌓는 게 먼저

그는 “미국 시장 진출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공을 기대하지 마세요.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작은 거래에서 신뢰를 쌓는 게 먼저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기업이 결국 미국 시장을 이깁니다.”

리 위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서 주제발표하는 대니 리 OK Biz 위원



중소기업인과 수출상담하는 대니 리 OK Biz 위원

K-팝을 이용한 지나친 상업화 경향을 비판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아이돌의 평균 수명을 짧게 보고, 과도한 유틸 및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화로 인해 문화적 가치보다 상업적 측면이 부각돼 미국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5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 주역인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원들.

‘모국 투자의 선구자’ ‘일본의 방적왕’ 서갑호 회장

1960년대 대규모 모국 투자 앞장,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부지 제공 등...재일공관 기증운동 앞장



10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선정된 ‘일본의 방적왕’ 서갑호 회장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5년 10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건물 및 부지를 기증하고, 어려웠던 시기 대규모 모국 투자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서갑호(1914~1976) 회장을 선정했다.

서갑호 회장은 1914년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9세 때 혈혈단신으로 일본 오사카에 건너간 그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폐품 수집, 사탕·껌 팔이 등 온갖 궂은일을 하며 한푼 두푼 종잣돈을 모았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 본 한 일본인의 소개로 오사카 센슈 지방의 타월공장 ‘신토(神藤)’에 취직,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베 짜는 기술을 터득하고 방직업에 눈을 떴다.

모은 돈과 ‘신토’로부터 받은 2대의 기계를 바탕으로 이즈미사노에 가내 수공업 형태의 면 방직공장을 차린 그는 면이 군수물자로 지정되어 생산하는 족족 팔리며 매출을 올렸고, 이는 훗날 방직 사업의 토대가 됐다.

해방 후인 1948년 3월, 모은 종잣돈으로 폐방적기들을 사모아 ‘사카모토 방적’을 설립하며 승승장구했다. 2년 뒤인 1950년 봄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을 매입해 제2공장인 ‘오사카 방적’을 설립했다. 6·25 전쟁 발발로 군복 수요가 급증하며 공장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서 회장은 여세를 몰아 1955년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히타치 방적’을 인수하며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1961년에는 연 매출 100억 엔을 올리고 ‘일본의 방적왕’이라 불리면서 오사카에서 가장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업가가 됐다. ‘사카모토 방적그룹’은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이끈 10대 방직회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고, 서 회장은 호텔, 부동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때 일본 전체 고객 소득자 5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조국이 부끄러우면 안 된다”...남다른 조국사랑

일본의 대기업 회장의 위치까지 오른 서 회장은 “조국이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남다른 조국 사랑을 바탕으로 조국과 재일 한국 동포 사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951년 10월, 도쿄 아자부 지역에 덴마크 공사관저로 사용하던 대지 2천400여 평과 2층 건물을 매입(현재 시가 1조 원)하여 당시 주일본대한민국대표부에 무상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96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재일동포 참관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계기, 아자부1번지 토지와 건물을 정부에 기증증서와 함께 헌납했다.

또한, 1970년 도쿄 시로카네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1975년 국가에 헌납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0달러도 안 되던 시절 정부가 매입하기 어려웠던 이 토지 및 건물들이 현재의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대사관저의 토대가 됐다.

서 회장은 재일공관 기증운동에도 앞장서 1963년 오사카 대한민국공사관 이전 시 그

를 비롯한 5명의 재일동포가 2천700만 엔을 마련하여 보증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재일동포 권익 향상과 민족 교육에도 헌신

서 회장은 동포 사회 권익 향상과 민족 교육에도 깊이 기여했다. 1957년 오사카 소재 한국학교인 '금강학원' 이사장을 제2대부터 맡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간 운영자금을 사재로 지원했고, '다카라즈카한국학원'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비를 보조했다. 또한, 오사카재일대한민국민단에 연 500만 엔씩을 찬조했으며,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 당시 한국관 건립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

서 회장의 모국 투자는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 시행 시기 본격화했다. 이는 최초의 재일동포 대규모 모국 투자 사례로, 당시 우리나라 섬유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재외동포 모국 투자의 선구자가 됐다.

그는 1963년 2월 영등포 소재 한국 최대 면직공장인 '태창방직'을 100만 달러에 인수해 서울 문래동 일대에 '판본방직주식회사'를 세웠고, 4년 뒤 '방림방직'으로 사명을 바꿨다. 1973년에는 구미에 약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면방기계와 최신식 방직기를 설치한 '윤성방직'을 설립했다. 방림방직과 윤성방직의 고용 인력은 4천명에 달했으며, 그는 젊은 여공들을 위해 방림방직 공장 내부에 '방림여고'를 세워 교육기자재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했다.

주일대사관, 매년 11월 1일을 '서갑호의 날'로 지정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1974년 1월 윤성방직 공장에서 143억 원 상당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2만여 평의 공장이 불에 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원유 가격 폭등으로 방직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결국 1974년 일본의 '사카모토방직'이 어음 3억 엔을 막지 못해 640억 엔의 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이는 한국의 '방림방직' 및 '윤성방직'에도 영향을 미쳐 보유 자산을 대거 매각하고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서 회장은 재기를 위해 일본, 홍콩, 필리핀 등을 오가며 동분서주했지만,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1976년 6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우리 정부는 그의 애국심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은 2013년 신청사 개관 시 그의 아호를 딴 역사관인 '동명관'을 대사관 내 설치했고, 2015년에는 그의 흉상을 제작해 전시했다. 또한, 2024년 신축한 대사관저를 '동명재'로 명명하고, 매년 11월 1일을 '서갑호의 날'로 지정하여 고인의 숭고한 조국애를 기리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서 회장의 기부와 투자는 재정적 기여를 넘어




1962년 8월15일 서갑호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부지와 건물 기증서를 전달 후 찍은 기념사진. 앞줄 가운데가 박정희 의장 부부, 좌우가 서갑호 회장 내외.



2013년 7월 18일 일본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새 청사 개관식에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 서갑호 회장의 자녀인 서상욱(2남·오른쪽서 2번째)·상운(3남)·경남(3녀)씨, 손녀인 서행재(맨 오른쪽)씨 등이 참석했다. 동명실이라는 이름은 고인의 호를 따서 작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일동포 사회 및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의 조국애와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10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임천택 독립운동 지사,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박노학 전 사할린역류귀환한국인회 회장, 이의경 지사, 서세모 의학박사 등이 선정됐다.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재미동포 사회 개척과 글로벌 간호사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제19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미국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에게 수여됐다. 무궁화장은 일반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유 이사장의 미국 한인 사회와 글로벌 사회봉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 인사, 세계 67개국 한인회장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유 이사장은 개인 사정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훈장은 추후 LA총영사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유분자 이사장은 미국 한인 사회의 개척자이자 한인 간호사의 대모로 불린다. 1968년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텍사스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에서 약 30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한인 간호사들의 권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헌신했다. 한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간호사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간호사에서 한인 사회 리더로

1971년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1975년에는 재미간호사협회를 설립해 1·2대 회장을 맡았다. 당시 영어 소통의 어려움과 소송 위협에 시달리던 한인 간호사들을 지원하며, 등록 간호사(RN) 자격 취득을 돕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1972년 RN 클래스 2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인 간호사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수많은 한인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 이사장은 2007년, 32년간 운영하던 외식 프랜차이즈 '비지비(Busy Bee)'를 양도하고 은퇴 후 새로운 소명을 찾았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



유분자 미국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품위 있는 노년과 죽음 준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는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어티 설립으로 이어졌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웰 에이징(well-aging)'과 '웰다이잉(well-dying)'을 목표로, 생존 유연장 작성 캠페인을 시작으로 장기·시신 기증, 호스피스 교육, 장례 절차 간소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유 이사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는 죽음' 대신, 자신의 일상과 주변을 차분히 정리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로 일하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5~6년을 살며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환자들을 많이 봤다"며 "사





유분자 이사장이 지난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래디슨 월셔 호텔에서 가족과 친지,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서전 '내일은 다른 해가 뜬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왼쪽). 지난 5월 미국의 엘리스 아일랜드 아너스 소사이어티(EIHS)가 수여하는 엘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한 모습.

회적 의료서비스 낭비를 막고자 '웰 다잉(well-dying)'을 위한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소망소사이어티와 '웰다잉' 운동

생존 유언장은 장기·시신 기증 여부, 위급 상황에서의 의료 처치 범위, 장례 방식, 재산 및 조의금 사용 계획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두 명의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 유 이사장은 특히 재미동포 1세대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노년의 비극적 죽음을 줄이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또한 6주 코스의 '사별 가족 캠프'를 운영, 가족을 잃은 이들이 외로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스스로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 이사장 역시 1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사별 가족으로, 당시 남편 장례식에서 받은 조의금 약 3만 달러를 소망소사이어티에 기부하며 모범을 보였다.

유 이사장의 활동은 미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됐다. 2009년 한국의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아프리카 차드에서 '소망우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차드는 극심한 식수난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며 병드는 주민들이 많은 최극빈국이다. IMF에 따르면 2020년 차드의 1인당 GDP는 741달러로, 인구 80%가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기대수명은 53세에 불과하다.

2010년 2월, 유 이사장은 팔순을 앞둔 나이에 차드 은자메나 남쪽 은두 마을을 방문해 첫 우물을 팠다. 현지에서 흙탕물로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목격한 참상은 그의 소명을 더욱 확고히 했다. 사흘 만에 완성된 1호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자 마을 전체가 환호했고, 유 이사장은 이를 "생명의 소리"로 기억했다.

이후 소망우물 캠페인은 한인 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확장됐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인들은 결혼반지를 팔거나 월급을 쪼개 기부하며 동참했다. 현재까지 차드에 설치된 우물은 451개로, 약 45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우물 1개 설치 비용은 약 3천달러로, 지역 주민 1천명에게 혜택을 준다.


삶과 죽음의 가교, 유분자의 소명

우물 프로젝트는 교육으로도 이어졌다. 2013년 첫 '소망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5개 학교가 차드에 세워졌다. 유 이사장은 1호 학교 개교식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라"며 눈물을 흘렸다.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총 168만4200달러에 달한다.

유 이사장은 2025년 5월,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엘리스 아일랜드' 상을 엘리스 아일랜드 아너스 소사이어티(EIHS)로부터 받았다. EIHS는 유 이사장이 치매와 가족 간병 연구, 시신 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의학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그의 저서로는 내일은 다른 해가 뜬다, 그래서 삶은 아름다가 있으며, 이는 그의 철학과 봉사 정신을 담고 있다.

유 이사장은 간호사로서, 봉사자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한인 사회와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해왔다. 그는 "나눔은 생명을 살린다"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우물을 퍼올리는 삶을 실천했다. 차드의 우물과 학교, 한인 간호사들의 성장, 웰다잉 운동은 그의 헌신이 남긴 유산이다.

유분자 이사장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인 디아스포라와 인류애를 연결하는 가교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내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 주도 첫 시험대

“동포 행사는 동포가 주도해야”...“동포청은 행정·예산으로 뒷받침”

“역 인턴·차세대 리더 포럼·세계청년대회 추진...차세대 ‘비례대표’ 길 열어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재외동포청 등 정부가 동포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인회가 주도하고, 정부는 행정·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렸던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올해 대회를 계기로 ‘한인회 주도’로 전환되는 흐름을 만들었다”며 “갈등과 진통을 감내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파탄과 재개를 반복했고, 끝내 합의에 도달했다”며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하는 한 사람까지 설득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가 무산됐다면 이번 대회는 나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라며 “이틀 동안 헛바닥이 험 만큼 대화하고 설득했다. 그만큼 절박했다”고 회고했다.

“분쟁은 현지에서 조정...‘분쟁조정위’ 상설화”

그는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한인회 내 분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법적 다툼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며 “현지 여론과 정관,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포사회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한총연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중립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다수의 의견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편파는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회장은 인터뷰 내내 ‘차세대’와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류와 K-푸드, K-컬처가 세계로 뻗은 배경에는 재외동포의 피와 땀이 있다. 이 토대를 잊지 못하면 열풍은 사라진다”며 단기 산업시설 견학과 문화 탐방 위주의 모국 체험은 한계가 있다. 해외 청년을 한국 기업·기관으로 6개월 이상 보내는 ‘역(逆)인턴 제도’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류의 토대는 디아스포라...지속하려면 뿌리 보강”

“차세대 동포를 한국 중소·중견기업, 콘텐츠·푸드·제조·IT 현장에 배치해 출퇴근·지하철·점심 한 끼까지 ‘진짜 한국’을 살게 해야 정체성과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정부·지자체는 항공료·기초정착비를 지원하면 큰 예산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SM·JYP·YG 등 콘텐츠 기업, K-푸드 프랜차이즈, 제조·반도체·IT 현장까지 스펙트럼을 넓혀겠다”고 했다. 병역 등 법적 이슈가 있는 경우 “합법 범위 내 기간·자격을 정교하게 설계해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차세대 동포 육성과 관련해 고 회장은 “리더십이 검증된 청년을 먼저 모으는 ‘차세대 리더 포럼’을 열고, 이를 토대로 ‘세계 청년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왼쪽서 5번째) 대통령과 김경협(왼쪽서 4번째) 재외동포청장이 참석자들과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서 3번째가 고상구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대회'로 확대하는 단계적 모델"을 제시했다. 참가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숙식·프로그램은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실질적 교류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촘촘히 엮어야 한다고 했다.

재외동포 정책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로는 동포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700만 명에 달하는 규모에 맞게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포 단체장이 '비례대표' 맡는 것은 분열 낳아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동포사회 단체장들이 직접 비례대표를 맡는 것은 분열을 낳을 수 있다"며 "좌우를 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40대의 참신한 차세대 동포에게 길을 열어 동포 이익을 원칙 있게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고 회장은 "오늘날 한류 확산은 정부 예산만으로 만든 성과가

아니라,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 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현지 외국 기업 지원에 쓰이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와 동포청에 바라는 점을 묻자 그는 "이번 정부의 '국민주권' 메시지가 동포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동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를 제도화해달라"며 "내년 한인회장대회가 그 첫 시험대다. 청년·차세대에 대한 투자를 예산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식품 유통매장 'K-마켓'을 150개 운영하는 고 회장은 21기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 부의장, 제18차 세계한상대회 회장, 제2대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한 글로벌기업가로 충북도 명예대사이기도 하다. [창](#)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4회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세미나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김건 국민의 힘 외통위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경협(왼쪽서 2번째)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상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총연합회 주최 세계한인회장 초청 워크숍에서 고상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협 청장 “고려인들 모국과 유대 이어가도록 지원”

채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면담서 협력 논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채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과 방문대표단을 만나 K-파크 조성 등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동포청이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소재 동포청에서 이들을 만난 김경협 청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협력 및 우호 관계 발전에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고려인 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유리 회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협(왼쪽서 4번째) 동포청장은 14일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채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을 만나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라타우 신도시 건설과 고려인 정주 90주년을 기념해 건립하고 있는 K-파크 조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유라시아의 새로운 허브를 지향하며 알라타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며,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이 신도시 내 약 3만평 규모로 한국 문화·비즈니스 복합시설인 K-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김 청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재외동포 사회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체류 동포들 “주거·고용 불안하나 한국 국적 취득 희망”

재외동포청, 중국 동포·고려인 등 체류동포 지원 위한 실태조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 거주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천1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심층 면접과 문헌을 통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동포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고, 다음으로 고려인은 12%지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60%에 달하며 주거 형태는 자가아 아닌 임대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이나 재계약 거부 및 보증금 미반환 등의 불안을 겪고 있었다. 출신국 사람이라는 인식(38%)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29%)보다 높아 이중정체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6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30%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고, 50%는 초중고생 자녀를 두고 있으나 학습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지도 및 교육비·교육 정보 획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0대 이상의 응답자 중 82%가 ‘중병 대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고, 고용(24%), 소득(21%), 주거(17%), 보건·의료(16%) 순으로 정부의 지원을 희망했다.

김경협 청장 “재외동포 언론, 좋은 정책 제안해달라”

재외동포웰컴센터서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참석자에 당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세계 한인 언론인들에게 “동포청이 좋은 재외동포 정책을 만들고, 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동포 언론들이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로 열린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및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했다.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와 재외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는 20개국 30여 명의 한인 언론인이 참가했다.

김 청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교류협력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으로, 현재 분단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동포사회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여론을 조성하는 동포 언론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인들은 17일까지 인천 강화, 충남 금산, 경남 창원·진해·마산을 방문해 다양한 지역 관광·산업·특산물들을 소개하는 취재를 하는 동시에 동포 언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최했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14일 열린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서 20개국 30여명의 한인 언론인을 격려했다.

동포청, 사할린서 ‘영주귀국 동포 정착 지원 설명회’ 개최

대한적십자사와 입국 절차·지원사항·신청 일정 등 소개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반가족을 포함하는 영주귀국 대상자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



20일 사할린서 열린 ‘영주귀국 설명회’

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으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할린에는 동포 1~2세 5천여명 등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

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9월 29일 ~ 10월 1일: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 10월 20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설명회
- 10월 21일 ~ 22일: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

재외동포청 공지

‘동포기업 인턴십’ 체험 수기 공모...11월 7일까지

2025년 수료자 대상...한상넷 통해 접수, 대상 등 10명 시상

재외동포청이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과 관련, 2025년도 체험 수기 공모전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수기(자유주제)이며, 응모 대상은 2025년도 프로그램 수료자(20기)다. 인턴십 참여 과정 전반의 경험과 성과, 배움과 제언 등을 자유 형식으로 담으면 된다.

접수는 한상넷(www.hansang.net) ‘나의공간(인턴십 활동 관리-인턴십 체험 수기)’에서 이뤄지며, ▲체험 수기(2,000자 이상·사진 3장 이상 필첨) ▲참가신청서 ▲저작권재산권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파일명은 ‘국가명_응모자 성명’으로 제출한다. 접수 마감은 11월 7일이다.

심사는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내용적합성(사업 목적·취지 반영, 정보 제공 여부·40점) ▲내용전달성(메시지 명확성, 이미지 등 근거자료 활용·30점) ▲참신성(형식·구성의 독창성·30점)이다. 결과는 11월 21일(금) 발표된다.

시상은 대상 1명(재외동포청장상·상금 30만원), 최우수상 1명(20만원), 우수상 1명(10만원), 장려상 7명(기프트콘 10만원 상당) 등 총 10편이다.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주최 측이 부담한다.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입상작에 한해 수상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공익적 목적의 홍보 활용(필요 시 수정·변경·재가공 포함)에 동의해야 한다. 표절·도용·무단



‘동포기업 인턴십’ 체험 수기 공모 포스터

사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된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또는 수정은 불가하다.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문의는 운영사무국(okaintern@gmail.com, 032-466-3225)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는 공모전 운영과 수상작 홍보, 기관 사업 홍보를 위해 수집·이용되며, 수상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보유된다. 제3자 제공 및 위탁 사항은 공모 안내문에 명시돼 있다.

2025 인구주택 총조사 10.22.~11.18.

인터넷 및 전화조사 | 10.22.~11.18.
방문 면접조사 | 11.01.~11.18.

박현주씨의 답이
청년 고용 촉진 정책 으로

김성철씨의 답이
노인 일자리 사업 으로

이서준씨의 답이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으로

김보영씨의 답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으로

대한씨의 답이
다문화 지원 정책 으로

김유빈씨의 답이
1인가구 주거 지원 정책 으로

이은영씨의 답이
활동제약자 돌봄 지원 정책 으로

서지원씨의 답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으로

당신의 답이 대한민국에 좋은 답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

조사대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 표본가구

홈페이지 | census.go.kr

콜 센 터 | 080-2025-2025 (무료) *오전8시~오후9시 (주말포함)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